

1950년대에서 1980년대의 영화에 나타난 한복

소 황 옥 · 김 유 승⁺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중앙대학교 패션예술학과 석사과정⁺

The Hanbok in the Korean Movies from 1950's to 1980's

Hwang Oak Soh · Yu Seung Kim⁺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Chung-Ang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Art, Chung-Ang University⁺

(투고일: 2013. 11. 19, 심사(수정)일: 2013. 12. 20, 게재확정일: 2014. 1. 29)

ABSTRACT

This study studied female Hanbok that appeared in Korean movies in different periods, and investigated the changes and flow of the Hanbok in the movies based on the design and the form. Research scope is limited to Hanbok in Korean movies released between 1950' and 1980', and in order to study Hanbok in movies, snapshots of Korean movies for each period are used. Pictures are sourced from the Korean movie database, and forms and colors of Hanbok in the pictures ar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Based on this, characteristics, changes and flow of Hanbok for each period are studied. Based on this, by investigating the Hanbok in Korean movies from silhouette and design perspectives and comparing each period, it is found that the following changes have been made: From 1950' to 1980', generally Min Jeogori (Normal Korean traditional jacket) had a higher rate. Up to early 1960', wide collar and collar strip were trends, but from 70' to 80', they have been remarkably narrowed. After liberation, ease and functional elements of western clothing were accepted. From 1950' to 80', generally wide and round shape sleeve were used. Also, from 50' to 80', normally skirt and Jeogori had the same color and fabric. Lastly, as Hanbok with western style fabric, rather than traditional Hanbok fabric was increasing, Hanbok with variously patterned fabric was shown. The lack of colored pictures led of limited research materials, and so a more accurate and sophisticated research on material and design was not possible.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has investigated changes and flow of Hanbok in modern Korean movies.

Key words: change(변화), fabrics(소재), Hanbok(한복), Korean movies(한국 영화), period(시대)

I. 서론

한복은 모든 의복이 그렇듯 시대적 상황과 당시의 유행에 따라 디자인과 실루엣 등이 조금씩 변해왔다. 하지만 개화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 사회가 본격적으로 현대화되면서, 한복은 이전보다 좀 더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한복의 변화는 이전과는 달리 크기와 실루엣 등의 단순한 변화가 아닌, 서양복의 영향을 받은 형태적인 부분과 소재 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한복의 변화를 보통 한복의 현대화라고 칭하는데, 한복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지금도 그렇듯이 대중매체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에 TV가 보급되기 전에는 영화가 대표적인 대중매체였고, 때문에 한복의 현대화와 한국 영화는 서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영화 속에 나타난 여성 한복의 모습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복의 디자인과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 영화 속 한복의 변화와 흐름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개봉된 한국 영화 속에 나타난 한복들로 제한하였으며, 영화 속에 나타난 한복의 모습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시대별 한국 영화들의 스펙사진들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자료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되어 있는 사진들을 참고하였고, 사진들 속에서 보이는 한복의 형태와 색상을 총 7가지 항목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항목은 깃, 고름, 배래의 형태와 직물의 종류, 색상, 저고리의 배색, 장식방법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 시대의 한복의 특징과 변화, 흐름을 조사하였다. 다만 사극영화 속의 의상은 영화가 만들어 지던 시기의 한복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극의 시대배경에 맞는 한복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극영화는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II. 1950~80년대 한복변화의 일반적 고찰

한국 전쟁은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한복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복은 형태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여기에 사회가 점차 서구화됨에 따라 한복의 형태와 소재, 디자인이 변하고 일상복으로 입어졌던 한복의 전통복식으로서의 가치도 이전과는 달라지게 됐다.

한국 영화 속에서 한복은 일상복 또는 예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영화 속에 등장한 한복의 모습은, 같은 시기에 한복이 현대화하던 흐름과 비슷한 흐름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한복의 형태와 소재의 현대화

한국전쟁을 겪으며 1950년대 초반엔 한복이 보다 실용적인 형태로 변했는데, 저고리의 등길이가 길어지고 고름대신 단추나 브로치를 사용하여 저고리를 여몄으며 깃과 동정의 넓이가 개화기 이후로 가장 넓은 경향을 보였다.¹⁾ 또한 전쟁의 영향으로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했고 그에 따라 한복은 전통적인 모습을 지키기보다는 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복의 소재 또한 전통적인 견직물 외에도 합성섬유나 수입 직물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1953년부터 일본에서 수입된 나일론은 옷감이 질기고 세탁이 용이해서 양장뿐만 아니라 한복 소재로도 큰 인기를 끌었고²⁾, 1956년에 영화 [자유부인]의 여주인공이 벨벳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나온 후에는 벨벳이 크게 유행해서 한때는 1인당 벨벳 사용량을 제한하기까지 했다.³⁾

2. 한복의 개량화

경제발전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들의 복식에서 양장차림이 많아졌다.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복개량운동은 계속되어 1961년 신생활 운동이나 1963년 한·일 친선 패션쇼에서 신 생활복, 개량한복 등이 제시되었으나⁵⁾, 이러한 개량한복은 한복을 개량했다기보다는 서양복에 한복의 요소를 가미한 형

대로 한복 본연의 미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영부인이었던 육영수여사는 대외행사 때마다 검소한 한복차림을 보였는데, 국내행사 뿐 아니라 국빈을 맞을 때나 해외 순방 때에도 한복을 즐겨 입어서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큰 역할을 했고, 대중들이 다시 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찾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3. 예복으로써의 한복

양장이 일상복으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1970년대에 이르러서 한복은 일상복보다는 예복으로써 장식적인 면이 강해졌고 직물, 색상, 장식 등이 화려한 디자인의 한복이 유행을 했다. 그에 따라 합성 직물의 편리성에 밀려났던 견직물을 고급품으로 여겨 다시 선호하게 되었고, 과거 왕실이나 상류층의 복식에서 사용되었던 문양 등이 자수와 금박으로 사용되었다.⁶⁾ 이러한 한복의 장식성은 점차 짙어져서 깃, 고름, 끝동뿐만 아니라 어깨, 소매에까지 자수와 금박, 그림 등의 장식이 더해져서 장식이 없는 부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잉 현상을 보였다.⁷⁾

한복은 1980년대도 70년대에 이어 예복으로써 장식성이 강조되었는데, 80년대 중반 모시와 같이 얇고 비치는 소재가 등장하여 '깨끼'라고 불리며 크게 유행하였고 이러한 직물로 만든 한복에 손 그림을 그려 장식성을 더한 한복이 유행하였다.

Ⅲ. 한국 영화에 나타난 한복의 디자인 특성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영화계는 매우 침체되었으나, 휴전 후 영화계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제작편수도 1950년에 5편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1969년에는 한 해에 229편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⁸⁾ 이러한 한국 영화 속에서 한복은 주로 일상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1>⁹⁾과 같이 영화 포스터에도 한복을 입은 여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는 등 영화의상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유두연 (1958),
“유혹의 강” 포스터
- <http://www.kmdb.or.kr>

현대 한국의 한복은 서양복의 유입으로 복식의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한복의 형태와 소재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 영화 속의 한복 또한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의 한국 영화들의 스냅사진을 바탕으로 한복의 디자인과 형태를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1950년~1959년에 제작된 영화 16편의 스냅사진 45장 중 나타난 한복 48벌과 1960년~1969년 사이의 영화 26편의 스냅사진 114장 중 109벌, 1970년~1979년 사이의 영화 33편의 스냅사진 110장 중 94벌, 1980년~1989년 사이의 영화 24편의 스냅사진 80장 중 43벌의 한복을 대상으로 하였다.

1. 1950년대 영화 속의 한복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대 초·중반에는 전쟁의 영향으로 반공영화가 주로 제작되었고, 그나마도 53년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사회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한 해에 최대 20편도 제작되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이렇듯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던 한국 영화계는 1955년에 개봉된 <춘향전>이 크게 흥행하면서 서서히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흔히 이때부터 1960년대 초

반까지를 한국 영화 중흥기라고 한다.

이 시기의 한국 영화 속의 의상들을 살펴보면 남자들은 노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서양식 양복을 입고 있는 것에 비해 여자들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한복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복 위에 코트를 입거나 장소를 불문하고 한복을 입는 등 일상복으로써 한복을 자연스럽게 입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1950년대는 한국 영화의 편수가 많지 않아서 영화 속에 나타난 한복의 모습을 다양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웠으나, <표 1>과 <표 2>를 보면 1950년대의 한국 영화 속의 한복들은 전체적으로 깃과 동정의 폭이 넓었고, 배래의 형태도 매우 넓고 둥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한복에서 깃과 동정의 넓이가 개화기 이후로 가장 넓었던 경향이 영화 의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 3>을 보면 50년대 후반의 작품부터는 <그림 5>¹⁰⁾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고리를 고름대신 단추나 브로치를 사용하여 여민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소재는 <그림 4>¹¹⁾에서 볼 수 있듯이 무늬가 없는 단순한 면을 사용한 한복이 많이 보였고 장식적인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화려하지 않아 깃이나 고름, 끝동에만 금박 장식이 있거나, 패턴이 프린트 된 직물을 사용한 한복이 가끔 보였다.

<표 1> 한국 영화 속의 한복의 깃, 동정의 폭
(단위 : 벌)

시기	좁다	넓다	합계
50년대	0	48	48
60년대	69	40	109
70년대	94	0	94
80년대	43	0	43

<표 2> 한국 영화 속의 한복의 배래형태
(단위 : 벌)

시기	넓고 둥근 형태	좁고 완만한 형태	합계
50년대	48	0	48
60년대	109	0	109
70년대	94	0	94
80년대	39	4	43

<표 3> 한국 영화 속의 한복의 저고리 여밈 방법
(단위 : 벌)

시기	고름	단추, 브로치	합계
50년대	33	15	48
60년대	60	49	109
70년대	53	41	94
80년대	39	4	43

2. 1960년대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영화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으로, 이후 3차례의 개정을 통해 한국 영화의 기업화, 수입영화 쿼터제 등이 시행되면서 한국 영화산업의 전망이 점차 밝아졌고, 연간 100~200편의 다양한 영화들이 제작되면서 60년대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로 불리게 되었다.¹²⁾ 이 시기에는 이 전의 사극, 희극영화, 멜로드라마와 같은 기존의 장르가 좀 더 진화하고 세분화되면서 스릴러액션, 청춘영화, 문예영화와 같은 새로운 장르의 영화가 새로이 등장하였고, 60년대 중반부터는 홍콩과의 합작영화 제작이 증가하는 등 한국 영화시장이 세계로 넓어졌다.¹³⁾ 또한 1960년을 전후로 와이드 스크린과 컬러영화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1969년에는 전체 제작편수의 96%가 컬러로 제작되었다.¹⁴⁾

영화의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청춘영화 등의 젊은 여성들은 한복보다는 양장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대에 이어 1960년대 초반까지는 깃과 동정이 넓은 편이었으나, 동시에 깃과 동정이 좁은 한복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저고리의 형태는 회장저고리보다는 민저고리가 더 빈번하게 보였고 <표 3>을 보면 50년대에는 저고리의 여밈에 단추나 브로치를 사용한 것이 48벌 중 15벌로 31%의 비율이었으나, 60년대에는 109벌 중 49벌로 45%의 비율로 증가하여, 단추나 브로치를 사용한 경우가 50년대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¹⁵⁾에서 보이듯이 배래의 형태는 50년대와 마찬가지로 넓고 둥글었다. 그리고 <표 4, 5>와 <그림 7>¹⁶⁾에서 보이듯이 60년대에도 50

년대와 마찬가지로 패턴이 있는 직물이나 레이스 등의 합성 직물을 사용한 한복이 많았고, 자수로 장식한 한복도 보이기 시작했다.

3. 1970년대

한국 영화는 1969년 한 해에 229편이 제작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70년대에 TV가 들어서면서 하강세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1972년에 시작된 유신체제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는 본격적인 침체를 맞이했다. 때문에 제작 편수는 비교적 감소했지만, 영화 의상 중에서 한복의 비중은 5, 60년대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부터 한복보다 양장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했고, 70년대 후반엔 한복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1970년대부터는 깃과 동정의 너비가 매우 좁아졌고, <표 3>을 보면 60년대에 이어 단추나 브로치를 사용해서 여민 저고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와 <그림 2>¹⁷⁾에서 볼 수 있듯이 레이스 직물을 사용한 한복도 많이 보였고, 직물의 패턴도 보다 화려해졌으며 금·은박이나 자수, 색동 등으로 장식된 한복이 비교적 많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한복이 화려해졌다. 그리고 60년대부터 컬러 영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70년대의 영화 속에서는 한복의 다양한 색을 비교, 연구할 수 있었는데, 7~80년대에는 전통적인 한복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오방색의 원색 보다는 연보라색, 하늘색, 연노랑색 등 옅은 파스텔 톤의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림 3, 8, 11>¹⁸⁾¹⁹⁾²⁰⁾을 통해 볼 수 있다.

<표 5> 한국 영화 속의 한복의 직물의 종류

(단위 : 벌)

시기	전통 직물	합성 직물	합계
50년대	24	24	48
60년대	47	62	109
70년대	25	69	94
80년대	21	22	43

4. 1980년대

한국 영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 해외 영화제에서 감독과 연기 등 여러 부문에서 수상하여 한국 영화 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또한 1984년에 영화법이 개정되고 1987년에는 영화 시나리오 사전 검열제가 폐지되면서 한국 영화는 제작 자유화를 이루었다.²¹⁾

이로 인해 70년대에 비해 한국 영화의 제작은 보다 활발해졌지만 한복의 비중은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80년대에 들어서 더욱 줄어들었다. 또한 한복이 일상복으로써 자주 등장했던 5, 60년대와는 달리 80년대에는 일상복으로써의 등장은 줄어들고 대부분 <그림 12>²²⁾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상복 보다는 상복과 같은 예복으로 등장하거나 기생, 무녀 등의 특수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입고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복의 비중이 줄어든 중에도 일상복으로 등장하는 한복들의 형태를 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하의의 색이 서로 같은 색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94벌 중 54벌인 57%의 비율이었던 70년대에 이어 80년대에도 43벌 중 23벌인 53%의 비율로 상·하의의 색이 서로 다른 전통적인 배색보다는 <그림 9>²³⁾와 같이 치마저고리가 같은 색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같은 색의 재킷과 스커트가 한 벌을 이루는 서양식 정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넓고

<표 4> 한국 영화 속의 한복의 장식방법

(단위 : 벌)

시기	단색	금, 은박	프린트 된 직물	자수, 그림	장식 보	색동	합계
50년대	16	1	29	0	0	2	48
60년대	41	0	60	7	0	1	109
70년대	43	2	46	1	1	1	94
80년대	20	4	13	4	0	2	43

등근 형태의 배래뿐만 아니라, <그림 10>²⁴⁾에 나타난 한복처럼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좁고 완만해진 배래도 조금씩 보였다. 저고리의 형태는 <표 7>과 같이 회장저고리보다는 민저고리가 더 빈번하게 보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표 6> 한국 영화 속의 한복의 치마저고리 배색
(단위 : 벌)

시기	상하동색	상하이색	합계
50년대	16	32	48
60년대	44	65	109
70년대	54	40	94
80년대	23	20	43

<표 7> 한국 영화 속의 한복의 저고리 배색
(단위 : 벌)

시기	회장저고리	민저고리	합계
50년대	14	34	48
60년대	31	78	109
70년대	20	74	94
80년대	10	33	43

IV. 결론

한국 영화 속의 한복의 모습들을 형태와 디자인 측면에서 조사하여 연대별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림 2> 전조명 (1976),
신혼소동
- <http://www.kmdb.or.kr/>



<그림 3> 조문진 (1971),
내 아내여
- <http://www.kmdb.or.kr/>



<그림 4> 전창근 (1955),
불사조의 언덕
- <http://www.kmdb.or.kr/>



<그림 5> 홍성기 (1959), 자나깨나
- <http://www.kmdb.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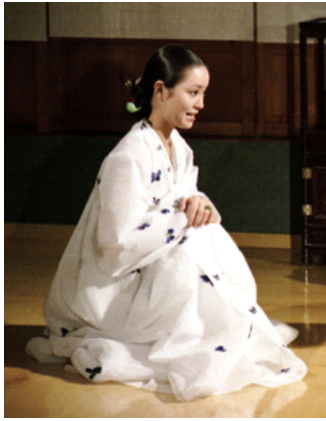
<그림 6> 임원석 (1969),
당신의 뜻이라면
- <http://www.kmdb.or.kr/>



<그림 7> 임원석 (1969),
당신의 뜻이라면
- <http://www.kmdb.or.kr/>



〈그림 8〉 조문진 (1971), 말썽난 총각
- <http://www.kmdb.or.kr/>



〈그림 9〉 김효천 (1981),
김두한형 시라소니형
- <http://www.kmdb.or.kr/>



〈그림 10〉 김수형 (1981),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 <http://www.kmdb.or.kr/>



〈그림 11〉 이두용 (1970), 잃어버린 면사포
- <http://www.kmdb.or.kr/>



〈그림 12〉 서윤모 (1981), 여자가 울린 남자
- <http://www.kmdb.or.kr/>

흐름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회장 저고리 보다는 민저고리가 70%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모습을 살펴보면 패턴이 프린트 된 직물을 사용한 경우엔 대부분 민저고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60년대 초반까지는 깃과 동정의 넓이가 넓은 편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60년대부터 깃·동정이 좁은 형태의 저고리도 보이기 시작했고 7-80년대에는 깃과 동정의 넓이가 눈에 띄게 좁아졌다.

셋째, 해방 이후 서양복의 착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복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디자인적인 측면 보다는 서양복의 편의성이나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수용되었다.²⁵⁾ 저고리의 전통적인 여밈인 고름을 없애고 서양식 단추나 브로치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한복의 현대화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50년대 후반의 영화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6-70년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보였다. 고름대신 단추나 브로치를 사용한 저고리는 대부분 민저고리였으며, 회장저고리는 여전히 고름을 사용하였다.

넷째,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줄곧 넓고 둥근 봉어배래 형태의 소매가 대부분이었으며, 80년대의 작품에서야 비교적 좁고 완만한 형태의 배래가 드물게 보였다.

다섯째, 전통적인 한복의 배색이 상하 보색을 이루는 원색적인 색 배합인 것에 비해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치마와 저고리가 같은 색, 같은 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70, 80년대에는 치마저고리가 서로 다른 색인 경우에 비해 갈색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았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한복 원단보다는 서양식 원단으로 만든 한복이 좀 더 많았다. 50년대 후반부터는 패턴이 프린트된 원단이나 화려한 레이스 등을 사용한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여, 60년대 영화 속에선 좀 더 다양한 디자인과 질감의 소재들이 사용된 한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60년대에 섬유공업이 크게 발전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70년대 영화 속에서는 화려한 레이스나 다양한 패턴의 직물이 사용된 한복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었다.

일곱째,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까지는 무늬가 없는 단순한 면·마직물이나, 무늬가 직조된 양단을 사용한 한복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70년대에 이르러서 금·은박, 자수, 그림 등의 다양한 장식기법들을 사용하여 한복이 보다 화려해졌는데, 당시에 한복이 예복으로서의 기능이 강해지던 경향이 영화 속 의상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자료의 부족과 흑백화면으로 인해 소재와 디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연구가 부족했으나, 현대 한국 영화 속 한복의 변화 흐름을 살펴본 것에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 1) 최경순, 김선령 (1999), 생활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 p. 38.
- 2) *Ibid.*, pp. 237-250.
- 3) 고부자 (2001), *우리 생활 100년 · 옷*, 서울: 현암사, p. 237.
- 4) 전양진 (1999),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와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p. 60.
- 5) 김미진 외 (2005), 근대이후 여성 생활한복의 특징 및 변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p. 151.
- 6) 홍경숙 (2002), 현대 전통한복에 나타난 자수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2.
- 7) 진미희 (1990), 한복 변천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여자 한복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15, pp. 159~160.
- 8) 호현찬 (2000), *한국 영화 100년*, 서울: 문학사상사, p. 176.
- 9) 유두연, “유혹의 강”,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0410&p__data=L&kind=stillcut&imageid=3752&spage=1
- 10) 홍성기, “자나깨나”,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0428&p__data=D&kind=stillcut&imageid=235745&spage=1
- 11) 전창근, “불사조의 언덕”,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0282&p__data=D&kind=stillcut&imageid=332645&spage=1
- 12) 김미현 (2006), *한국 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 169-174.
- 13) *Ibid.*, pp. 169-191.
- 14) *Ibid.*, pp. 179-180.
- 15) 임원석, “당신의 뜻이라면”,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1890&p__data=N&kind=stillcut&imageid=97157&spage=3
- 16) 임원석, “당신의 뜻이라면”,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1890&p__data=N&kind=stillcut&imageid=97156&spage=3
- 17) 전조명, “신혼소동”,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3046&p__data=D&kind=stillcut&imageid=203038&spage=9
- 18) 조문진, “내 아내여”,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2412&p__data=D&kind=stillcut&imageid=340576&spage=2
- 19) 조문진, *말썽난 총각*,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2280&p__data=D&kind=stillcut&imageid=337569&spage=2
- 20) 이두용, “잃어버린 면사포”,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2184&p__data=D&kind=stillcut&imageid=338586&spage=2
- 21) 호현찬, *op. cit.*, pp. 241-251.
- 22) 서윤모, “여자가 올린 남자”,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3520&p__data=N&kind=stillcut&imageid=113312&spage=5
- 23) 김효천, “김두한형 시라소니형”, 자료검색일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3546&p__data=N&kind=stillcut&imageid=113312&spage=5

- kind = stillcut & imageid = 114501 & spage = 7
- 24) 김수형,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2013. 7. 22, http://www.kmdb.or.kr/movie/mdimage__view__pop.asp?nation=K&p__dataid=03565&spage=2&p__data=D&kind=stillcut&imageid=239885
- 25) 이진민 (2005), 한·일 여성 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6.